

SW수출 급증

SW업계를 대상으로 SW 수출 실적을 조사한 결과, 해외사업 수주액(1~10월)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12.5억불, 수출액(1~8월)은 40% 증가한 7.7억불로 나타났다. IT서비스 분야는 6.5억불(36% 증가), 패키지 SW는 1.2억불(65% 증가)이다. 해외 수주 후 입금 완료까지 통상 3년 이상 소요되어, 수주액과 수출액 모두 조사한 것이다.

수주액(1~10월)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2.5억불이다. 현재 협상 중인 계약을 고려할 경우 금년 말까지 역대 최대인 13억불 수주가 예상(전년 대비 71%인 5.4억불 증가)된다.

카자흐스탄 「동계아시아게임 정보시스템 구축 및 방송서비스 사업」(쌍용, 0.6억불) 등 대기업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예상된다.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1~10월	전체	1~10월	전체(예상)
수주액(억불)	6.7	5.8	7.6	12.5	13.0

수출액(1~8월)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7.7억불을 달성하였다. IT서비스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6.5억불, 패키지 SW 분야는 65% 증가한 1.2억불이다. 패키지 SW는 산업범용(ERP 등), 산업특화 분야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SW수출실적의 급증은 IT서비스 대기업의 스

마트 SOC 등 해외 新시장 개척과 패키지 SW기업의 틈새시장(산업특화 등) 공략 성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1~8월
		1~8월	전체	
수주액(억불)	9.2	5.5	9.2	7.7

수주실적 증가는 과거 동남아 중심의 해외진출에서 탈피하여 중동·중남미 등 자원부국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과,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위주에서 대형 스마트 SOC 프로젝트 등으로 수출 분야를 다변화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체 수주액 12.5억불 중 중동 3.3억불 (27%), 중남미 1.2억불 (10%)이고, ITS시스템(키르기스스탄), 모바일 결제 시스템(미국), 지하철관리 시스템(브라질) 등이다.

패키지 SW 수출 증가는 보안·미들웨어 분야와 산업범용·산업특화 SW 등에서 두드러졌으며, 산업범용 SW(ERP 등)와 산업특화 SW 등 기존 산업과 연계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 주효하였다.

기계·토목·건축 설계 SW 솔루션 등이고, 전년 동기 대비 산업범용 SW 115% 증가, 산업특화 SW 46% 증가하였으며, 패키지 SW 수출 상위 기업은 ERP, 자동차 네비게이션, 건설, 의료, 항만관리, 미들웨어, 보안, 모바일 SW 등의 분야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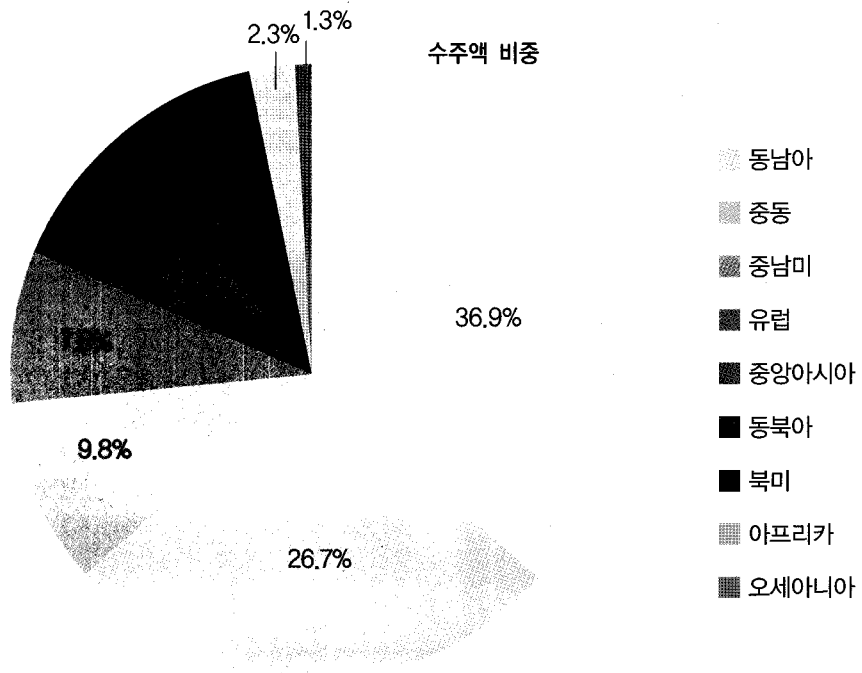
SW업체가 계열사·공공 정보화사업만 바라보는 '해

바라기' 형 사업 구조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10

년 IT서비스 상위 3개 기업의 전체 매출 중 해외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액(백만불) 지역별 분포〉

동남아	중동	중남미	유럽	중앙아시아	동북아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총합
460	332	123	98	96	52	41	29	16	1,245.7
36.9%	26.7%	9.8%	7.8%	7.7%	4.2%	3.3%	2.3%	1.3%	100.0%



정부도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2월) 발표 이후 그 후속조치의 집행을 통해 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어 SW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SW수출 급증 추세를 이어나가고 진정한 SW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SW 수출의 양적 규모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수출 실적 급증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공개 경쟁을 하기에는 우리 SW기업의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지경부는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UN·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공동 정보화건설링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국내 SW기업이 선진화된 IT컨설팅 기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등 선진적인 업무 방식의 체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동·중남미 등 자원부국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선진국 시장 공략*, 국제기구 자금과 연계된 공개경쟁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의 진입은 쉽지 않으므로, 우리가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 (예를 들어 원전 IT분야에서는 한전 KDN?포스코 ICT 등이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 중심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패키지 SW 분야에서도 의료·항만관리·건축 등 경쟁력을 확보한 특화 분야의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진출 경험을 축적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전자 산업 등 주력 산업의 수요기반을 바탕으로 임베디드 SW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

궁극적으로 내수 시장이 아닌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일류 SW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11.3~4일 공개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9차

〈 SW 분야별 수출액 ('10년 8월 기준) 〉

(단위 : 백만불)

SW 분야		2009년 1~8월	2010년 1~8월	증감율
패키지SW	시스템SW (미들웨어, 보안, 데이터분석 등)	26.7	40.8	52.8%
	응용SW (개인용, 산업범용, 산업특화 등)	47.4	81.6	72.2%
	합 계	74.1	122.4	65.2%
IT 서비스	IT시스템관리 및 지원서비스	149.9	272.2	81.6%
	IT컨설팅 및 시스템통합	312.6	375.4	20.1%
	기타IT서비스	16.9	2.3	-86.4%
	합 계	479.4	649.9	35.6%
총 계		553.5	772.3	39.5%

『한중일 IT 국장급 회의와 동북아 공개SW활성화 포럼』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지식경제부 김준동 신산업정책국장,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SW정보서비스국장, 일본의 경제산업성 통상정보정책국장이 참석하여 3국간의 공개SW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SW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간의 공개SW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전자정부 플랫폼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 협력을 논의하여 해외 시장 진출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부대행사로서 한·중·일 공동으로『동북아 공개 SW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이번 포럼중에

한중일 공개SW 관련 전문가가 진행하는 Trainig Camp를 마련하여 안드로이드 모바일(한국), 서버&보안(중국), 루비 커뮤니티(일본)에 관한 주제 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번행사는 올해 9회째로 행사중 한국 공개SW 포럼 의장인 서울대 고건 교수를 비롯하여 한중일 공개SW 전문가와 업계, 커뮤니티 개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명실상부 3국간 공개SW 협력을 더욱 굳게 하는 채널이 되었으며, 동북아를 넘어 국제무대로 확대해가는 계기가 기대된다. 내년도 제10차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WBS 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부터 '13

년초까지 2년 6개월간 추진되는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 1차 과제를 수행할 5개 컨소시엄을 확정하였다.

동 사업은 금년 2월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립한 범부처 「SW강국도약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형 SW R&D 사업으로 SW기업 역량 강화와 개발SW의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 SW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요대기업은 상용화를 지원하는 협력 모델을 지향한 것이다.

동시에, 개발SW에 대한 지재권은 주관·참여기관 관계없이 SW업체에게 부여하여 SW업체의 수요기관에의 종속화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일반R&D는 주관기관에게 지재권 부여하고, WBS프로젝트는 주관기관/참여기관 관계없이 SW개발기관에 지재권 부여하는 것이다.

구분	5~7년	2~3년
지원기간	5~7년	2~3년
컨소시엄	제한사항 없음	SW업체·수요기관 참여 의무화
지재권 부여	주관기관	SW개발업체

지난 2월 「WBS 프로젝트」 사업 추진 발표 후, 6개월간 300여명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도출한 1차 7개 과제에 대한 사업 수행기관 공모 결과, 14개 컨소시엄이 접수되었다.

평가위원회(10.11~10.12)와 심의위원회(10.27)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5개 과제의 컨소시엄을 확정하고, 2개 과제는 보다 완성도 높은 사업 수행을 위해 재공고 후 보완·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확정은 무인기SW(한국항공), 모바일SW(인프라웨어), 보안SW(안철수연구), 영상진단SW(인피니트헬스케어), 교통SW(스마트카드)이고, 주관기관만 기재하면서 컨소시엄별 평균 7.8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재공고는 병원 SW, 자동차SW이다. 실질적인 개발물, 상용화 실적을 위해 강도 높은 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최종 선정된 WBS 수행 컨소시엄의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을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중소기업이 주관기관 역할(5개중 4개)을 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혜가 크다. 지원금 사용비율은 중소기업 82.7%, 비영리기관 14.8%, 대기업 2.6%이다.

대기업인 관련 업종의 주요 사업자가 수요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발SW의 성공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져 성공적인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기는 픽소니어-KAI, 모바일은 인프라웨어-SKT, 보안은 안철수연구소-인터넷진흥원, 영상진단은 인피니트헬스케어-KT, 교통은 스마트카드-LG CNS이다.

그간 기획, 평가 과정과 같이, World Best라고 할 수 있는 명품 SW 도출을 위해 과제 수행 역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개발 결과물의 성능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 HW와 달리, 개발 각 과정이 성능과 유지보수력을 결정하는 SW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 SW R&D 최초로 SW품질관리 전담기관(SW공학센터)을 지정하여 SW 개발 숲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서화시키는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를 실시한다.

또한 마일스톤점검(반기) 및 품질관리(상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과제의 계속·탈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금번 「WBS 프로젝트」는 선정된 과제 내용뿐만 아니라 개발프로세스 평가·관리에 있어서도 향후 SW R&D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SW 개발에 필수적이므로 주요 산업 수요자 중심의 Top-down 기획을 추진한다.

모바일, 에너지, 국방 등 국내 기간산업에서 필요한 핵심 SW와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패키지SW 등을 도

출하여 추가적으로 「WBS 프로젝트」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WBS프로젝트 지원과제 중 모바일SW의 경우 개방형 웹 플랫폼 개발이다. 과제 개요로 현재 아이폰과 구글이 주도 하고 있는 스마트폰 플랫폼은 향후 2~3년내 HTML5를 기반으로 웹 플랫폼으로 진화·확장이 예상된다.

스마트폰 SW 플랫폼 시장 규모는 '09년 9,067억원에서 '13년 1조 6,129억원이다.

국내 업체가 주도 가능하고 글로벌 플랫폼으로 육성이 가능한 HTML5 기반 개방형 웹 플랫폼 및 웹 응용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스마트폰용으로 개발, 2차적으로 웹패드, eBook 등 다양한 emerging device들에 확장 적용한다.

개발 내용을 보면, 개방형 웹 플랫폼은 유무선 통신과 방통융합의 기본 플랫폼으로써 다양한 컨버전스 환경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HTML5, CSS3, Widget2.0, XHR Level2 등 차세대 웹 표준 기술과 단말기 및 네트워크(CDMA, WiFi) 제어를 위한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Multi Screen 지원을 위한 UI, 다양한 화면 효과 지원을 위한 그래픽 라이브러리 기술, 데이터 및 콘텐츠 공유를 위한 Web Sync, Web 응용 프레임워크 기술, Web 기반의 단말 내부 자원 접근 인터페이스, 보안, 권한 제어 기술, Web Application, 라이브러리 개발을 위한 저작 도구 환경 등이다.

개발 효과로 해외기술에 의존하여 발생하였던 문제(ActiveX, 보안, 인증 등)를 해결하고 PC, 모바일, 차세대 단말기에서 상용기술 개발여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스마트폰, TV, PMP, e-Book 제품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본 기술을 통한 국내시장 점유율 '12년까지 12%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